

이재명 “尹 정권, 정치검찰 이용 치졸한 보복행위”

“법인카드, 무혐의 불송치 결정”
민주 “국면 전환 쇼” 강력 반발
“위기탈출 위한 비겁·무도한 습성”
검찰, 업무상 배임 기소 가능성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7차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소식에 민주당도 ‘국면전환 쇼’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지탄압위원회는 전날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공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소환 조사 통보로 현재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게 5번째 재판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부터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시켜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배씨를 수사한 경찰은 이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송치

하지 않았는데, 공익 제보자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이 전 대표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는 점에서 조사 후 이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동안 ‘법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혜경씨에 수사 초점을 맞췄는데 이 전 대표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김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국회의원 전현직 배우자 3명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이르면 9일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한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진 형국이어서 이에 대한 입장도 직간접적으로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美 출국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박5일 간의 미국 순방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국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워싱턴까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 사례다. 윤 대통령은 10일 워싱턴에 도착해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열고 양자현안과 국제정세를 논의한다. 연

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만남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1일 오전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갖고 본행사인 32개 나토 동맹국, IP4, 유럽연합(EU)이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나토가 유럽·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에 앞서 8~9일 하와이를 방문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해병대 수사 외압’ 등 신속 수사 촉구 박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해병대 수사 외압·검찰의 특활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김두관, 당 대표 출마 선언 공식화

김두관(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8·18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김 전 의원이 9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민주당 정선은 제왕적 대표가 이끄는 1인 정당이 아니고 노무현, 김대중 정신이라는 취지에서 세종시에서 출마 회견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시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차담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경쟁하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도 이르면 9일 연임 도전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등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11일 국회 본회의 열고 방송4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당은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 방송3법과 방통위법 등 중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파행을 겪고있다. 당장 8~9일로 잠정 합의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되면서 당분간 일정 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대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어서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며 오는 16~19일 사이 혹은 9일 조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10일 시민단체와 특검법 수용 촉구대회를 열고, 13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참여한다”며 “19일 오후에는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기정 “나경원, 정율성 이념 갈라치기 안타깝다”

나 의원, 사업부지 찾아 철회 촉구 강 “5·18·AI 등 현안 먼저 말했어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차담도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의 출마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 전 의원이 경쟁하는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대표도 이르면 9일 연임 도전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등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서울=김선욱 기자**

지적했다. 또 “정율성 문제는 우리(광주) 시에 맡겨둬도 지체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 후보는 이날 광주 표심을 잡기 위해 동구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를 찾아 “6·25 전쟁 주범 정율성을 기리는 것은 호남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정율성을 기리는 공원 대신 진정한 민주화를 기념하는 역사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율성은 공산주의를 위한 독립운동을 했고 6·25 전쟁의 주범인데 그를 여기에서 기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화순군 등은 중국의 3대

혁명음악가로 불리는 정율성 선생이 광주 출신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관련 행사와 기념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정율성 선생을 둘러싼 이념논쟁이 불거졌으며 보훈부 등은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화순군은 지난 2008년 능주초등학교에 설치한 정율성 흉상을 최근 철거했으며 광주 남구는 양림동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 계획을 수정해 양림 문학관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보수단체 회원에 의해 두 차례 훼손됐던 흉상은 재설치 하지 않고 보관 중이며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생가터 조성사업(역사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칭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노병하 기자**

원희룡 “광주 희생으로 다져진 민주주의 더 발전시킬 것”

인요한과 5·18민주묘지 참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원희룡 후보가 8일 광주를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했다. 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했다. 이번 참배에는 인요한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참석했다. 공식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는 ‘광주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바탕에 있음을 늘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故) 박현숙 양과 홍남순 변호사 묘 앞에서 헌화하고 참배했다. 박현숙 양은 지난 5월18일 5·18 44주기 정부기념행사에서 ‘한혈 여고생’ 고박금희 양과 사진이 뒤바뀌어 영상에 송출돼 국가보훈부가 유족에게 사죄한 바 있다. 박양 묘역 앞에 선 원 후보는 “어린 나이

에 희생을 당한 것에 너무 안타깝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참배를 마친 원 후보는 민주신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도 미래를 향해, 함께 힘을 낼 수 있는 정치 환경이 되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로 나아가는 더 큰 통합의 정치를 위해 무엇이든 앞장서겠다”면서 “광주의 희생으로 다져진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